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 호

**안전인으로 최초의 "신지식인"
두산건설 조정호 과장**


신지식인 조정호 과장은 건축을 전공하였고 안전에 매료되어 10여년 전 안전에 뛰어 들었다. 그 동안 자기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비롯해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대한주택공사 최초 무해 300만시간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OHSMS-18001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학문에 취해 있다.

조정호 과장은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한다. 퇴근 시간 3시간을 활용하여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자를 위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정립하여 CD-ROM으로 무상 배부하는 기여도 아끼지 않은 조정호 과장은 최근 인터넷에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다.

계약직, 임시직으로의 근무는 시대적 조류인데,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취업을 꺼려하는 사례에 대해 시대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임시직, 계약직 따지지 말고, 먼저 경험을 쌓아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일축한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면 결국 경쟁시대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은 자기개발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우리 안전인의 길도 더 넓고 높이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우리 나라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10여년 동안의 쌓아온 실무가 후배 안전관리자들에게 등대와 제2의 하인리히가 되고 싶다고 하는 조정호 과장은 우리나라 건설안전백서를 만들기 위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안전한 작업 방법과 환경친화적인 현장 모델 자료 수집에 한창이다.

끝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자의 위상 고취를 위해 선두주자로서 등불이 되어 주길 기원하며, 안전에 대한 계획과 포부가 모두 성취되길 바랍니다. 

조정호 과장이 추천하는 인물

IMF와 규제완화로 그 동안 안전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는데, 항상 안전관리자들을 위해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힘있는 말로 격려하며, 관의 위치에서의 현장 점검 및 감독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김화복 감독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